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

검은 연기가 삼킨
주말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와 재, 매캐한 냄새가 퍼지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소방 당국은 진화까지는 수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화재는 생고무와 화학 악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뚝이 튀면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광주 지역 전체 소방서의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20대 직원 1명이 대피 중 골절을 당했으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30대 소방관과 50대 소방관이 각각 머리에 상처를 당하고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광주극장, 오월의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극장에서 펼쳐지는
오월, 그 이후의 이야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극장이 오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화를 소개했다. 광주극장은 김경자 감독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와 김용진 감독의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정윤철·정상진 감독의 '다시 만날, 조국' 등을 소개했다.

다.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에는 5·18 마지막 수배자이자 미국의 한국 정치 망명자 1호인 윤한봉 선생의 이야기가 담겼다.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한 거짓말 행태 등을 들춰냈으며 다시 만날, 조국은 검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정치 여정에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야기를 다뤘다.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일부 유골함 침수

광주 5·18 민주묘지
유골함 침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일부 유골함의 침수가 공식 확인됐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배우자 합장 과정에서 발견됐으나 유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재화장 후 안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침수 사고는 2017년 확장 조성 당시 배수 문제가 있는 지반에 묘역을 설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묘역은 2020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토사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배수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을 반영하고, 유골함 밀봉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힘, 5·18 진압 지휘 정호용 위촉 논란

게임 사과는 했지만
5·18 진압자 위촉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뒤 논란이 일자 약 5시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 가담자로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특히 1980년 특전사령관으로 광주에서 유혈 진압을 지휘했으며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모의 참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미리 상의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놔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던 발언에 대해서도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고 송주항 전남도 선관위 주무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말하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일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제기된 것으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억측에 불과하다.

의혹 중 하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상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수의 법칙은 독립적으로 반복되는 실험에서 실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평균값이 이론적 기댓값에 가까워진다는 통계 개념이다. 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위성'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무작위성이 없다. 투표는 연령대, 거주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유권자가 선택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법원에서도 선거인의 정당 지지 성향, 사전투표를, 선거일 당일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투표함 바뀌치기 역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 이 특수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흔적이 남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필적 대조를 통해 위조를 판별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한다. 그 후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며 그 과정에서 특수봉인지 일부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이송에 참여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게 확인서를 징수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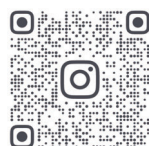
이렇게 이송된 투표함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위원회 내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출입 역시 엄격하게 통제된다. 보관 장소에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출입문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국·과장, 정당이 추천한 위원회 위원이 함께 서명한 특수봉인자로 봉인한다. 투표함 보관 기간 동안 도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다층적인 보안체계에서 투표함을 바뀌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중투표 가능성에 대한 의혹 또한 꾸준히 제기되나 이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해서 당일선거 투표소에서 사용한다. 선거 당일 본인 확인 과정에서 투표 중복 여부가 걸러지기 때문에 동일인이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기술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되며, 부정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음모론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한 표가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를 철저히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